



2022년 7월 3일(제1095호) 연중 제14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어느덧 군종 사제로서 시간을 보낸 지도 일 년이 다 되어갑니다. 사제가 되어서 이곳저곳으로 다양한 파견을 경험했지만, 군으로 파견을 온 것 자체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만에 다시 돌아온 군의 모습은 많은 것이 변하기도 하였고, 여전히 남아있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이 군으로 파견되어 왔던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인한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파견. 우리 군인 가족분들도 이 파견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곳으로 떠나는 것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파견이죠. 나라에서, 군에서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견은 낯선 곳으로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과 그곳에서 만나게 될 다양한 이들을 향한 설렘,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해야겠다는 부담감, 그럼에도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조그마한 믿음. 이렇듯 복잡하고 다양한 심정이 한 데 섞여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파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 생활을 하는 목적이 있듯이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에 파견하시고, 성자는 또 제자들을,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까지 내려오는 이 파견은 그 목적을 달성해야만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곧 임무 완수죠. 그 임무란

## “파견”

바로 하느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 아무개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해나가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신앙인으로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그 안에 숨어계신 하느님을 발견하고, 전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날 파견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파견을 받았고,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내 주변 사람에게 파견되었습니다. 미사가 끝날 때마다 사제가 외치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는 파견을 뜻합니다. 이는 미사 안에서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그 복음의 기쁨을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파견의 목적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나라는 존재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것. 이렇듯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 파견된 이로 살아갈 때 세상은 복음이라는 선물을 다시 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파견받은 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지 성찰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진환(프란치스코) 신부  
소성(제17보병사단)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회 답 송 제 2 독 시 복음 권호송

- 이사 66,10-14ㄷ
-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 갈라 6,14-18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 복 음 영 성 제 송

- 루카 10,1-12.17-20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 스물한 번째 시한

할말이 무궁한들 어찌 지필(紙筆)로 다하리. 그친다.

우리는 미구에 전장에 나아갈 터이니, 부디 착실히 닦아 천국에 가 만나자. 마음 사랑하여 잊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너희 이런 난시(難時)를 당하여 부디 마음을 허실히 먹지 말고 주야로 주우(主祐)를 빌어, 삼구(三仇)를 대적하고 군난을 참아 받아, 위주 광영하고 여등(汝等)의 영혼 대사(大事)를 경영하라.

이런 군난 때는 주의 시험을 받아, 세속과 마귀를 쳐 덕공(德功)을 크게 세울 때니, 부디 환난에 놀려 항복하는 마음으로 사주 구령사(事主救靈事)에 물러나지 말고 오히려 지나간 성인 성녀의 자취를 만만 수치(修治)하여 성교회 영광을 더하고 천주의 착실한 군사와 의자가 됨을 증거하고, 비록 너희 몸은 여럿이나 마음으로는 한 사람이 되어, 사랑을 잊지 말고 서로 참아 돌보고 불쌍히 여기며, 주의 긍련(矜憐)하실 때를 기다리라.

할말이 무수하되 거처가 타당치 못하여 못한다. 모든 신자들은 천국에 만나 영원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 입으로 너희 입에 대어 사랑을 친구(親口)하노라.

부감 김 안드레아.

세상 온갖 일이 막비주명(莫非主命)이요. 막비주상주벌(莫非主賞主罰)이라. 고로 이런 군난도 또한 천주의 허락하신 바니, 너희 감수 인내하여 위주(爲主)하고 오직 주께 슬피 빌어 빨리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다리라.

내 죽는 것이 너희 육정과 영혼 대사에 어찌 거리낌이 없으랴. 그러나 천주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에게 내게 비겨 더 착실한 목자를 상 주실 것이니, 부디 설위 말고 큰 사랑을 이뤄, 한 몸 같이 주를 섬기다가 사후에 한가지로 영원히 천주 대전에 만나 길이 누리기를 천만 천만 바란다.

잘 있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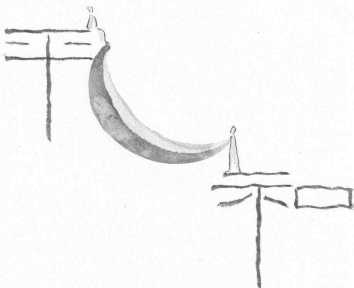
김 신부 사정 정표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 평화를 전하는 이



"영길아!  
너는 무얼 하고 싶은데?"

"그래. 그리 살아라.  
네가 전하는 그 평화에  
내가 함께하겠다."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읽고,  
처음 마음먹었던,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평화를 전하는 이이고  
싶습니다."

그리 살고 싶습니다.

# 7월 상시김 목상글

복음 낭독: 마르 15.16-20

(이어서 신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래의 글을 낭독한다.)

아름다우시고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군인들 가운데 벌거벗긴 몸으로 서 계십니다. 이는 말할 수 없는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인 우리가 하느님께서 입혀 주시고 꾸며 주신 모든 은총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벗어던지며 저지른 수많은 죄악을 갚으시고자 그 모든 모욕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거룩한 옷을 되찾아 주시려고 그런 망신까지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옷이 없다면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묵시 3,17)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매 맞으시는 동안 입을 다무신 채 한마디 신음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참기 어려운 고통에도 조금도 괴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보속하시고자 성부께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시며 모든 고통을 이겨 내셨습니다. 온몸이 상처로 얼룩지고 피범벅이 되셨지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다면 어떠한 고통도 당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흉악한 형벌의 원인이 된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고행으로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젖은 땅에 입을 맞추거나 성혈이 묻은 채찍을 집어 들고 우리 자신을 바른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이 사랑의 불을 놓아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며,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늘의 임금님, 어찌하여 더할 수 없이 필요한 이때에 주님을 도와줄 이를 만나지 못하십니까? 한 번 만지자 하혈하는 여인의 병이 낫고,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한 거룩한 옷이여, 주님께서 구원 사업을 완성하실 때까지 주님의 상처를 막으며 그 핏줄을 막아 주님의 몸을 보존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의지를 강하게 하시어, 저희가 지금까지 행하지 못하였던 것을 더 많이 실천하게 하소서.

출처 : 『상시김』, 한국진주교주교회의, 2012, 146~147쪽 발췌

##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4주말: 상기브리질 정재욱 신부

### ◆ 교구장 동정

- 백골(제3사단) 성당 사목방문
- 때: 7월 3일(주일)

### ◆ ‘군중의 시간’ 안내

- 때: 주일 오전 8시 ~ 9시
-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 군중교구 홈페이지와 평화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 많은 청취 바랍니다.

“상제상시로 거듭나는 삶” -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요한 6,57)